

자연과 어우러진 세계최대규모의 오리숯불구이 명가

세계 최대의 오리숯불구이 전문점

90-나안

오·감·만·족!

참숯불오리구이에 빠져보아요~

러거
DUCK



2



1



3

- ① 자글자글 구워지는 숯불 구이
- ② 오리고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갖가지 반찬류를 과감히 생략하였다.
- ③ 한약재와 오리뼈를 우려 내 맛도 건강도 Good!

흔히 오리고기라 하면,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해독 작용이 뛰어난 웰빙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강식으로 유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높은 가격대와 오리는 특유의 이취가 있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가나안덕은 이러한 공통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질 좋은 참숯에 신선한 냉장육을 사용, 주요 소비 육류를 뛰어넘는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토속적 인테리어와 소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히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인 테마형 오리고기전문점으로 특별한 광고 없이 입소문만으로 성공한 곳이다.

무엇보다 전직원이 하나부터 열까지 고객의 입장에

서 생각하는 시스템과 서비스 마인드는 가나안덕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열쇠라 할 수 있다.

● 오리구이에서 감칠맛이?

가나안덕의 주 메뉴는 뭐니뭐니해도 숯불구이로, 실제로 가나안덕 매장에 가면 메뉴가 딱 한 가지, 참숯불구이만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한번 맛 본 고객이 몇 번이고 다시 찾는 이유는 극히 단순하지만 그만큼 맛이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의 말을 빌자면, 가나안덕의 이 오리구이를 처음 접해 보는 고객들은 대부분 담백하고 깔끔한 맛에 놀란다고 한다. 비결은 특별할 것이 없지만 균일하고 좋은 품질의 오리고기를 엄선된 참나무 숯에 구워 기름기는 쑥 빼지고 참나무 본연의 그윽한 풍미는 더

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에 어필하고 있다. 또한 고구마로 유명한 전남 해남의 당도 높은 밤고구마를 숯불가마에 넣고 구운 것과, 각종 한약재와 오리뼈로 우려낸 육수로 만든 오리죽은 참숯불구이 만큼이나 유명한 가나안덕의 명물로 손꼽힌다. 특히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호호 불어먹는 고구마와 고소한 오리죽의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라 할 수 있다.

● 내 가족의 먹거리를 고르듯 꼼꼼하고 철저하게!

「고객을 가족처럼」여기는 가나안덕은 신선하고 맛 있는 것만 해주고 싶은 가족의 마음처럼 모든 식자재와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재료인 오리는 사육오리에게 급여하는 사료부터 부화, 사육, 출하, 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하여 최고 품질의 오리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상추, 무, 배추 등 야채류와 장류는 전부 유기농 재배

한 것만 사용하고 각 농가와 위탁계약을 하여 순수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공급받고 있다.

각지에서 엄선된 식자재들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관능테스트를 실시하여 그날 그날 상태를 체크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철두철미한 품질 관리를 통해 최상의 신선도와 균일한 맛을 유지시킴으로서 소비자들의 믿음을 사고 있다.

● 오리를 먹고, 분위기를 마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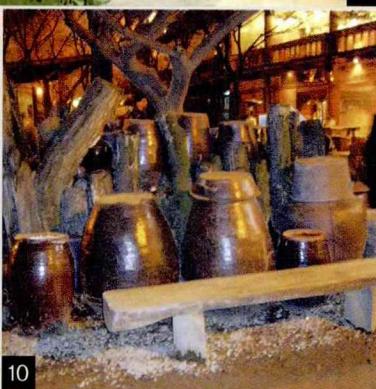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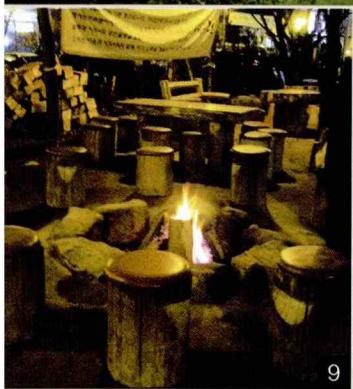
봄이면 꽃과 향기가, 여름이면 초목의 푸르름이, 가을엔 낙엽의 우수가, 겨울에는 고즈넉이 쌓인 눈의 아늑함이 사시사철 연출되는 곳, 가나안덕에 들어서면 편안함과 안락함이 곳곳에 배어 있어 마치 테마휴식공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이렇게 계절마다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선자 대표가 전국 각지를 돌며 건축과 조형물을 관찰하고 연구해 이루어낸 결과물로 기둥



- ① 숯불에 굽는 고구마. 은은한 숯향이 배어 맛이 일품이다.
- ② 숯불에 구워 노랗게 잘 익은 고구마의 단면
- ③ 상큼한 무쌈과 오리의 만남.
- ④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사육되고 있는 오리





⑥ 운치가 있는 풀

⑦ 본관 앞에는 자그마한 우물 하나
가 정취를 더한다.

⑧ 가나안덕 신관 앞을 파릇한 나무
들이 장식하고 있다.

⑨ 모닥불과 함께 도린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⑩ 나뭇가지와 향아리가 하나의 조형
작품을 보는 듯하다.

⑪ 한 쪽에서는 한 화가가 고객의 초
상화를 그려주고 있었다.

9

10

11

하나, 나무 한 그루조차도 직접 배치하는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장독대와 아름드리 나무 등 투박한 듯 하면서도 정감 있는 소품 장식과 통나무 건물은 그야말로 다양한 분위기와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가나안덕을 찾는 많은 고객들에게 평화로움과 여유를 선물하고 있다.

●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경영마인드

가나안덕을 찾아준 모든 고객이 보내주는 사랑과 성원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기본정신이며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 지점에서는 여러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금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동반한 고객에게는 1만원권 가나안 덕 외식상품권을 증정함으로서 온가족이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처럼…

가나안덕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한 고객이 남긴 인상적인 이야기가 남겨져 있다. 추운 겨울, 오리구이가 생간나 찾은 가나안덕 매장에서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환히 웃으며 반겨준 종업원의 따뜻한 한마디에 금새 마음까지 훈훈해 지더라는 메시지였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다는 말처럼 고객 하나하나에 세심한 배려와 서비스를 아끼지 않음으로서 사람을 낚는 경영으로 손꼽히며 굴지의 외식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가나안덕

바로 기름진 축복의 땅에서 나는 오리라는 뜻이다.
이는 이 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여유와 풍요를
찾고, 소외되는 이들 없이 행복한 파라다이스가 되기를
바라는 전 직원들의 염원일 것이다.

